

아시아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윤희원

ICEM consultant

KLSI consultant

Icem.asia.mnc@gmail.com

010 2083 4715

1



인디아

- ◆ 인구: 12억
- ◆ 면적: 328만 7263 제곱 킬로미터
- ◆ 1인당 GDP 1176 dollar
- ◆ 노동자수 3억9200만)
- ◆ 조직 노동자수 4118만 (노조 주장)
 - ◆ BMS (830만), INTUC (786만), AITUC (460만), HMS (530만), CITU (343만) 등 13개 노총

2

인디아 – 경제 발전 단계

- ◆ 1945년까지 식민지 경제
- ◆ 1945년 ~ 1991년까지 국가중앙통제 계획경제
- ◆ 19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화와 시장경제

3

정치적 조합주의 (political unionism)

- ◆ AITUC (인도공산당, CPI)
- ◆ INTUC (인도민족회의)
- ◆ HMS (사회당 계열)
- ◆ BMS (Bharatiya Janata Party, BJP)
- ◆ CITU (CPI – Marxist)

4

인디아 – 도전과 과제

- ◆ 엄청난 잠재력(인구, 자원, 기술) 동시에 위협
- ◆ 정치화된 노동운동
- ◆ 상급단체의 분열과 실무능력의 부족
- ◆ 기업별 수준의 단체교섭
- ◆ 초기기업별 교섭이 기업수준의 교섭을 짓눌러(시멘트 산업협약)
- ◆ 노조 간부의 무능과 부패
- ◆ 집안 사업이 된 노조일: 시아버지, 남편, 며느리, 시어머니
- ◆ 영어, 힌디어, 타밀어: 언어의 분리와 영어 사용자의 노조운동 지배
- ◆ 지역맹주 같은 지역노조위원장

5



인도네시아 2010년 12월 현재

- ◆ 인구 224,900,000명
- ◆ 면적 191만 제곱 킬로미터
- ◆ 1인당 GDP 2858 dollar
- ◆ 노동자 114,500,000명 (비공식부문 포함)
노조 조직률 3.8%
- ◆ 공식노동자수 30,000,000만, 조직조직률 11%
- ◆ 조직 노동자수 3,414,455명
- ◆ 노조 조직 기업 수 207,640?

6

인도네시아

- ◆ 공식 노총 3개
- ◆ KSPI (60만 조합원, 9개 산별 연맹), SPSI (150만 조합원, 17개 산별 연맹), KSBSI (38만 조합원, 13개 산별 연맹)
- ◆ 전체 산별연맹 수 90개, 이 중 39개만 3개 노총에 소속. 무소속 혹은 기타 법외노총 가입

7

인도네시아

- ◆ 화학에너지광산노조연맹(KEP)- KSPI 가맹, 257개 공장조직, 조합원 109,000명, 80% 단체협약 있음, 5년마다 대의원대회, 300명 대의원, 재정 3억 루피아 (받은 조합비, 받은 외부 지원)
- ◆ 제약병원노조연맹(FARKES) – KSPI 가맹, 98개 공장, 28,800명 조합원, 90% 단체협약, 5년마다 대의원대회, 258명 대의원, 3억 루피아 (받은 내부 받은 외부)
- ◆ 시멘트노조연맹(ISI) – KSPI 가맹, 6개 회사 9개 공장, 조합원 14,650명, 6개 단체협약, 4년마다 대의원대회, 대의원 45명, 1300만 루피아
- ◆ 제지노조연맹(FSP 2KI)- 무소속, 13개 기업, 조합원 17,069명, 9개 단체협약, 4년마다 대의원대회, 대의원 39명, 2억3200만 루피아 (받은 스웨덴노조 등 외부 지원)

8

인도네시아 – 도전과 과제

- ◆ 엄청난 잠재력: 인구, 면적, 천연자원, G20
- ◆ 1990년대 후반 투쟁의 기억: “자본주의, 자본가”
- ◆ ILO 핵심협약 8개 모두 비준
- ◆ ILO 자카르타 사무소 (수십 명 근무)
- ◆ 노조운동의 분열 (3개 노총 +)
- ◆ 기업별노조 체계 및 상급단체의 지도력과 조정력 부재
- ◆ 사회보장제도 공동 투쟁

9



말레이시아 2010년 12월 현재

- ◆ 인구 2천825만
- ◆ 면적 32만 9847 제곱 킬로미터
- ◆ 1인당 GDP 7546 dollar (2010년 추정)
- ◆ 노동자 1천161만
 - ◆ 민간부분: 520만 (2006년 기준)
 - ◆ 공공부분: 110만
 - ◆ 비공식경제: 450만
- ◆ 조직 노동자 803,405
- ◆ 노조 조직률 6.9 %
- ◆ 노조로 조직된 기업 수 693개
- ◆ 노총 1개 Malaysian Trade Union Congress (MTUC) with 50만 조합원
- ◆ MTUC 가맹조직 244 개 노조, 그 중 20개 전국노조

10

말레이시아

- ◆ 전국석유화학노조(NUPCIW) 조합원 14215 명
182개 공장별 조직, 단체협약도 180개 정도
- ◆ 전국고무제조생산종업원노조(NUECMRP)
6000명, 30개 공장, 29개 단체협약
- ◆ 식품산업종업원노조(FIEU) 7600 명, 70개
공장, 30개 단체협약
- ◆ 전국전력노조(TNB) 5700명, 단체협약 1개
- ◆ 전국운수엔지니어링노조(NTEUW) 5700명,
27개 공장, 자동차 조립

11

말레이시아

- ◆ NUPCIW: 3년마다 총회, 대의원수 120명,
노총에 대의원 15명 파견, 1년 예산 30만
링깃, 전국에 4개 사무실, 15명 상근간부
- ◆ NUECMRP: 3년마다 총회, 대의원 60명,
27만 링깃, 3개 사무실, 7명 상근간부
- ◆ FIEU: 3년마다 총회, 1개 사무소, 상근자
5명, 30만 링깃

12

Malaysia-이주노동자 문제

- ◆ 외국인 이주노동자 180만 (2006년 현재)
- ◆ 민간부문 취업자의 34.6%
- ◆ 1992년 플랜테이션과 건설업에 최초로 허용
- ◆ 2000년 제조업으로 확대
- ◆ 2002년 모든 업종에 전면 허용
- ◆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 21명에 외국인 1명, 수출 관련
- ◆ 국가별 구성 (2006년)
 - ◆ 인도네시아 117만4천 (63%)
 - ◆ 네팔 21만4천 (11%)
 - ◆ 인디아 13만8천 (7%)
 - ◆ 미얀마 10만9천 (6%)
 - ◆ 베트남 10만6천 (6%)
 - ◆ 방글라데시 6만3천 (3%)
 - ◆ 기타 6만4천 (4%)

13

말레이시아 – 도전과 과제

- ◆ 1950~60년대 비공산 “사민주의” 정책: 국민의 중산층화, 사회인프라의 구축: 싱가포르 분리
- ◆ 마하티르 등장 이후 노동조합 억압
- ◆ 전국노조(소산업업종별) 체계, 그러나 기업별교섭, 전국노조도 너무 세분화
- ◆ 노조 지도부의 관료화와 부패: 노조 지도부 호화생활(9000링깃 기본급, 1500링깃 차량수당, 법정수당...)
- ◆ 이주노동자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심화- 기간제 및 사내하청노동자
- ◆ 투쟁 정신의 상실, 학습과 토론의 부재
- ◆ 언어 문제: 영어와 말레이어의 분리. 400만 영어 가능, 8만이 완벽한 영어 구사. 법원의 제1언어는 영어. 말레이 통역.

14

베트남 2010년 12월 현재

- ◆ 면적 331,951.4 km²
- ◆ 인구 9000만
 - ◆ 남자 4299만 49.4%
 - ◆ 여자 4398만 50.6%
 - ◆ 농촌 6095만 70.1%
 - ◆ 도시 2602만 29.9%
- ◆ 1인당 GDP : 1169 dollar
- ◆ 15세 이상 인구 93.5%
- ◆ 노동인구 4380만, 인구의 51.1%
 - ◆ 도시 1190만 (27%)
 - ◆ 농촌 3190만 (73%)
 - ◆ 여성 46.6%

15

베트남

- ◆ 베트남 유일 노총체계
- ◆ “공산당의 지도를 받들어...”
- ◆ 베트남노동총연맹(VGCL) 1929년 7월 28일 출범
 - ◆ 조합원수 6,888,462만 (2010년 5월 현재)
 - ◆ 여성조합원 3,386,523만
 - ◆ 노조가 조직된 작업장 수 103,245개
 - ◆ 63개 도연맹, 20개 산별노조
- ◆ 도연맹 - 시군구연맹 - 산업단지노조 - 기업노조

16

베트남 국가부문/민간부문 조합원수

◆ 국가부문	3,749,448
◆ 공공기관	2,535,482
◆ 국영기업	1,213,966
◆ 비국가부문	3,139,014
◆ 비공공기관	81,269
◆ FDI 기업	1,292,906
◆ 국내기업	1,764,839

17

베트남 국가부문/민간부문 작업장 수준

노조가 조직된 작업장수	103,245
◆ 국가부문	74,221
◆ 공공기관	68,955
◆ 국유기업	5,266
◆ 비국가부문	29,024
◆ 비공공기관	3,503
◆ FDI 기업	3,689
◆ 국내기업	21,832

18

베트남 - 조직단위별 조합원 수

- ◆ 63 개 특별시도 연맹
 - ◆ 조합원수 5,350,040
 - ◆ 유노조 작업장수 96,973
- ◆ 20개 산별노조
 - ◆ 조합원수 1,538,422
 - ◆ 유노조 작업장수 6,272

19

베트남 - 도전과 과제

- ◆ 엄청난 자원과 인력: 건물, 호텔, 차, 인력, 조직체계
- ◆ 정당과 국가로부터 독립성과 자주성
- ◆ 관료화와 부패 - 낮은 임금: 28살 노조 간부의 월급 150만 동(1달러 2만 동)
- ◆ 단체협상의 미숙과 단체협약의 사실상 부재
- ◆ 시도연맹과 산별노조의 활동영역과 관할권 충돌
- ◆ 경영진과 노조간부의 이중 직위
- ◆ 노동법의 후진성
- ◆ 사내하청의 합법화 추진중
- ◆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직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시사점

20



태국

- ◆ 인구 6700만 (2010년 추정)
- ◆ 면적 51만 3120 제곱 킬로미터
- ◆ 1인당 GDP 4620 달러
- ◆ 노동자 수는 3700만
 - ◆ 국가 부문이 323만 명
 - ◆ 민간 부문이 889만 명
 - ◆ 비공식 경제 informal economy는 2300만 명
 - ◆ 외국인 이주노동자 47만 명
 - ◆ 내국인 이주노동자 200만 명

21

태국 - 공무원 및 국영기업 노동자

- ◆ 공무원 등 정부기관 종사자는 민간부문 종사자에 비교할 때 고임금과 좋은 복지를 누리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 정부가 사용자인 부문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없는 상태임.
- ◆ 전력공사, 철도공사, 정부제약회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등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허용되며, 고임금과 좋은 복지를 누리고 있음. 하지만 시시때때로 민영화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

22

태국 - 민간부문

- ◆ 민간부문 노동자 889만 명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임금과 복지 수준이 공공부문에 비하면 열악함.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관련하여 많은 제약 조건이 있음. 임금은 적은 반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중소기업들의 경우 하루 10-12시간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임.
- ◆ 민간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3.73%에 불과함. 사회보장청에 등록된 전체 민간 기업 231,853개(작업장 수준) 가운데 1258개에만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노조의 조합원 수는 331,853명임. 이들 1258개의 민간부문 기업별노조들은 그 중 378개가 방콕에 573개가 방콕 인근 수도권 지역, 227개가 동부해안 공업단지에 밀집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대단히 편중된 상태임.
- ◆ 비공식경제 부문에 2300만 명이 일하는데, 이들은 가내 노동자와 택시기사 및 노점상 같은 “자영업자” 들로 구분할 수 있음. 이들에 대한 복지 보장은 형편없는 수준임.

23

태국 - 도전과 과제

- ◆ 경제발전이 자유시장경제 중심으로 되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무시당함. 자유방위적 시장주의가 득세하면서 사회주의 등 평등주의 지향성이 약화되어 왔음.
- ◆ 국가 기구가 자본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 노동운동의 분열과 파편화. 전국 수준에 13개 노동조합 전국조직이 있고, 18개 연맹이 있는데, 전국조직과 연맹 간의 연계성이 거의 없고, 연맹들 간에도 정치성향과 인맥 중심으로 관계가 이뤄지는 수준임.
- ◆ 상급단체는 분열되어 있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상급활동가를 둔 상급단체도 별로 없는 수준임.
- ◆ 이런 분열상 속에서 국제노동단체들도 각 연맹 혹은 상급단체를 끼고 분열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노동운동의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ASEAN과 APEC 등 세계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24

태국 - 군주제 문제

- ◆ 왕실모독죄
- ◆ 태국 최대의 재벌
- ◆ 판사 임명권
- ◆ 법안 거부권
- ◆ 가부장주의, 봉건제
- ◆ 레드셔츠 엘로우셔츠



25

결론 - 아시아 노동운동의 현황

- ◆ 너무 큰 나라와 너무 많은 인구(산넘고, 바다건너서: 기차로 30시간)
- ◆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도 없다: 상급단체의 역할, 지도력, 조정력 부재
- ◆ 산별노조는 뭘니까? 기업별 단체교섭과 기업별노조 활동의 횡행
- ◆ 노동법보다 못한 단체협약: 범위의 협소함과 수준의 저열함
 - ◆ 임금 비밀주의
 - ◆ 모든 것을 사용자에게: 사측의 경영 전권 인정
- ◆ 사업장 단위의 현장활동 부재(특히 조합원교육)
- ◆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확산: OT 강제노동
- ◆ 노조 사무실과 노조 상근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 ◆ 노동자 경영참여라고요? 정보권/ 협의권 / 합의권
- ◆ 국제노동기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모르쇠 사용자
- ◆ 직장만족도: 인도네시아 - 베트남 - 인디아/말레이시아 - 태국
- ◆ 식민지의 귀환(colony is coming back.)
- ◆ 민주주의와 자주의 수호자로서 노동조합의 역할

26

제안 - 노조 국제사업

- ◆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link'
- ◆ 아시아 연대에 눈뜨자.
- ◆ 어려운 주제 말고 쉬운 것,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일상활동, 단체교섭)
- ◆ 외국어를 공부하자: 누구나 영어로 발표가 가능하다. 엄청난 자료가 인터넷에, 인터넷 자료의 80%가 영어. 99%가 외국어.
- ◆ 국제연대 150만원이면 된다.
- ◆ 일본노총(레고), 중국총공회는 어용이니 상대 안 한다?
베트남노총은?
- ◆ 노동운동사, 국제노동운동 학습하자 (한국은 ILO 핵심협약 몇 개나 비준했나?)
- ◆ 맹비 제대로 내자.